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716
결재일자	2014.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책조사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강지은	代이봉규	이용식	11/09 代이용식
협 조 자	정책기획담당 김관홍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I 회의개요

- 일 시 : 2014년 11월 5일(수) 10:00~12:00
- 장 소 :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 참석인원 : 11명
 -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 : 위원 4명(윤진호, 송규봉, 김대일, 박우형)
 - 성북구 : 마을기획단장, 정책조사팀, 정책기획팀
- 안 건
 - 수요자 중심의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방향성
 - 2015 사회지표조사 추진방향
 -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방향
 - 정책 콘텐츠 시각화
 - 구정인식조사 방향(주민만족도·FGI)
 - 구정 관련 전반적인 현황 및 추후 사업 방향 설정
 - 마을민주주의 2015 실행계획

II 회의결과

- 진행순서
 - 안건 발제
 - 안건관련 자유토론
 - 추후 일정 협의

-생활구정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예산과
정책조사팀

□ 참석자 주요의견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현 정부는 쌍방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각종 통계자료 및 구정현황자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우리구도 현재 구정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범위를 넓히고자 함.
-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는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정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지표화 및 시각화하여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구정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3대 화두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개념과 관련하여 열린지방정부를 지향하고자 함.
- 제 1차 회의에서는 수요자중심의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업무방향성 설정 관련 안건 논의 및 구정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윤진호 위원장

-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현재 안건에 대한 검토는 각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의논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은 실무적 단계에 대한 논의보다 구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함.
-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자면, 현재 구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실행과정에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음. 몇 가지 중요한 문제의식들이 실제 사업의 주체와 공유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장과 기존의 구정추진단이 논의단위가 되어 구정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함.

○ 김관홍 정책기획팀장

- 기본적으로 민선6기 주요추진사업 관련 개별추진단을 결성할 예정이며, 교육혁신 분야는 기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사회적 경제 부분은 공약에 대한 이행에 있어 진행 중임.
-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넘어가면서 이전과 다른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피리를 줄이는 논의가 필요함.

○ 박우형 위원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모두 점검할 수는 없음. 예컨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지 과제별로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음.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 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 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함. 그리고 이에 대한 각각의 정책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민선5기 최종보고서의 경우, 공약사항의 검토와 정리가 실제 이행과정에 있어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민선6기 구정추진단 최종용역보고서는 실제 실행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박우형 위원의 의견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윤진호 위원장

- 구정 추진에 있어 아쉬운 점은 논의과정이 담당부서장 및 과장과 거의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업예산 및 조직개편 과정에 추진단의 논의가 반영되지 않아 추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임.

○ 송규봉 위원

- 청장님이 4년 후에 받고 싶은 성적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가장 좋은 모습은 구민들로부터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정치여론과 상관없이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 따라서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구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했을 때, 4년 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음.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한재현 마을기획단장

- 최종보고회 이후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최종용역보고서의 문제의식이나 우선순위,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부적인 집행체계나 중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전진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장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업무보고 방향이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진행사항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지 문제의식을 이끌어갈 중심축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윤진호 위원장**

- 추진사업에 대해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는 이행체계에 대한 점검, 배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임.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함. 추진단 회의 시 주요 간부 및 담당부서장의 주도가 필요하며, 논의가 의미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단위를 공식화하고 배치할 필요 있음.

○ **김관홍 정책기획팀장**

- 가장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체계는, 중점사업 선정 후 그 사업에 해당되는 담당부서장 및 참여 기획단 또는 관련 담당자와 구청장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임. 그 외 개별적으로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원들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윤진호 위원장**

- 현재 예산편성 및 조직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 따라서 민선6기 중점과제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분과별로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 있음. 4년의 성과가 1년 예산편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행계획의 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박우형 위원**

-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모든 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점검할 사업에 대한 선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추진단은 실제 과제를 집행하는 조직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각 과제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접근 시, 하나의 과제를 중심으로 협조 요청 및 다른 부가적인 작업에 대한 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한재현 마을기획단장**

-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요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산에 의해 중요과제들의 실행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됨. 추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김관홍 정책기획팀장**

- 현재 최종용역보고를 끝낸 상태이며, 계획수립에 대한 검토 및 최종 방침도 마무리된 상태임. 이행계획을 기초로 각 담당부서에서는 내년 사업계획 및 전체적인 전략과제에 대한 작업을 이달 중순쯤에 마무리할 예정임.
- 현재 예산이 넉넉지 않아 신규 사업의 경우 추진이 힘들 수 있음. 따라서 사업추진 시 예산문제에 대해 미리 고려해봐야 할 것임.
- 부서별 6-7개 되는 추진단의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작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공약전체에 대한 부분은 “시민평가단”구성을 준비 중에 있음.

○ **윤진호 위원장**

- 이쯤에서 본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자 함. 현재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자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 위원회는 추후 “구청장님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조정위원회”로써 역할을 수행하였으면 하며, 구청장에게 구정 전반에 관한 논의를 전달하는 중간과정에서의 실무적 조정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 회의는 월 1회 상설 진행되었으면 하며,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조직개편 및 예산문제임. 회의 시 담당부서장이 참석하여 추진단과 함께 주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함.

○ **박우형 위원**

- 현재 예산 배정은 추진단이 제시했던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제의식이 공유 내지는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적어도 상징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었어야 했음.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음.
- 교육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이 취약함.

○ **윤진호 위원장**

- 구정 관련 추진체계에 있어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공유 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함.
- 스마트성북 추진 분과위원회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 **윤진호 위원장**

- 마을 기획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동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야 주민이 마을계획을 수립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할 필요 있음.
- 정책조사팀도 주요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임. 민선6기 구정방향을 고려하여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사회지표조사 결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여태까지의 사회지표조사는 보고서를 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추후에는 구청장이나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 보고를 하고자 함. 보고는 특별한 지점을 찾아서 별도로 요약물 하거나 걸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때 분석결과는 지표와 함께 지역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예정임.

○ **윤진호 위원장**

- 사회지표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현업부서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음. 즉, “현업부서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에 대해 공유해야 함. 조사를 수행하는 지표주체 및 GIS분석, 현업부서는 모두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함. 현업부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통의 단계는 항상 존재해야 하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정책적 의지가 드러난 관리지표에 문제의식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2015 사회지표조사 방향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용역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업부서와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회의 때에도 언급되었던 내용임.
- 주민참여예산 관련하여 담당부서별 협의 후 지표화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임.

○ **윤진호 위원장**

- 3가지 요소(정책부분, GIS분석시각, 현업부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함.

○ **송규봉 위원**

-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앞으로의 조사방향 설정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음.
- 하나는 기존에 조사되었던 민선5기 구정 관련 주민만족도 분석 자료를 통해 의미 있는 재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구 사례를 통해 우리구가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 지 검토하는 것임.
- 지금까지의 조사방식을 관행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무엇을 묻게 할 것인가” 또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기존에 조사된 구정인식조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 이를 재해석 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임. 또한 공단·재단의 이용자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자 데이터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 지, 용역 수행 시 본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함.

○ **김대일 위원**

- 2014 사회지표조사 최종 산출물 검토 결과, 민선6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문화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실제 공약과의 연관성 필요함. 교육·문화와 관련된 기초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을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증가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분석이 필요함. 특히 실제 도서관에서는 “이용률”이라는 개념에 대해 통상적으로 쓰지 않으며, 이 개념을 사용할 시에는 산식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함.

- 이용률의 경우, 실제 도서관 자체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보다 주변 교통여건 및 제반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도 이용률이 높게 나올 수 있음. 도서관 사용자 수에는 허수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실질적 참여에 대한 통계·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2015 사회지표조사는 공약항목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분야를 특성화하여 GIS기법으로 추가 분석하고자 함.

○ **김대일 위원**

- 동 주민센터 간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투입은 참여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 주민잔치면 잔치로써 주민, 세대, 구역 간에 화합 도모가 정책안에 투영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음.
- 동단위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스토리나 인물 등의 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경연대회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박우형 위원**

- “동 단위를 좀 더 잘게 나눠야 하지 않나”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조사를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음. 길음1동의 경우는 동의 특성이 완전히 균일하나 정릉동이나 월곡동, 장위동의 경우는 동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지도상에서 좀 더 잘게 쪼개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김대일 위원**

- 인프라 여건에 따라 동 보다 더 작은 단위인 소상공권으로 쪼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역세권이나 출퇴근 경로 또는 공공의 정책서비스가 집중되는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동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마을과 관련하여 조사 시 조사항목에 대한 선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 **송규봉 위원**

- 행정동 안에서도 성별, 연령, 가구형태 등에 따라 전출입 분포가 다름.

○ **한재현 마을기획단장**

- 마을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자원조사임. 자원조사는 인적네트워크와 동에 대한 전반적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최종준 정책조사팀장**

- 여기서, 추진방향에 있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 실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송규봉 위원**

- 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동에 대한 준거점을 알아야 함. 준거점은 서울시 전체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단위인 성북구 전체 평균이 될 수도 있음. 준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비용의 추가 투입 없이 분석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김대일 위원**

-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하나는 성북구에서 현재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3순위에 들어있는 동에 대해 목적사업으로 잡고 이것을 동단위로 들어간 후 이들이 서울시 및 성북구에 대해 얼마나 보편성을 갖는지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것임. 이것은 추후 정책수립 시 정책의 목표와 직결되는 조사·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또 하나는 동 단위의 조사에 있어서 연령대별, 소득별 사회적 관계망의 수 및 내부 참가자의 수 등에 대해 동 내부에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임. 즉,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나 있는 지 조사하게 되면, 이는 주요정책의 의사결정에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Ⅲ

제2차 회의일정

일 시 : 2014. 12월 중(예정)

안 건

- 2015 조직개편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점검
- 민선6기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체계 관련 논의
- 스마트성북 추진을 위한 구정 관련 자문